

시론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해남 땅끝에서 보는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의 정상회담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이 일회성 이벤트로, 선연적 의미에 그쳤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관계된 주변 강대국들의 손익계산에 따른 부지런한 움직임이 그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이야기하면서 해남 땅끝을 앞세웠는지는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의 평화를 이끌어 내는 결과에 시작에 불과하며 그 이후 진행될 많은 일들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휴전선은 남북의 대치점에서 그치지 않고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의 연결을 가로막고 있는 동서진영의 장벽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담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남북의 경제협력과 주변 국가들의 목적과 이해관계가 잘 조정된다면 이제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이 연결되고 환태평양권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미 각국의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이 상황에 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그래서 해남의 땅끝은 땅끝이 아니라 유라시아로 향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해안과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 될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연결된다면 두발로 아시아와 유럽을

모두 다닐 수 있게 될 것이고, 경제적 물류는 한반도를 통해 해양과 연결될 것이다. 그야말로 유라시아 경제권의 꼭지점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휴전선에 의해 납축은 반도이면서 섬이 아닌 섬이 되어 고립되는 모양새였다면 이제 고립된 섬이 아니라 정보와 물류와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땅끝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광주와 전남이 이런 시대적 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작 광주와 전남의 내일에 대한 고민, 급변하고 있는 국제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광주, 전남의 대응은 보이지 않고 지방과 상대후보의 흡집만을 도드라지게 하는 정쟁만 난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광주, 전남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고 시·도민들의 피로감 역시 적지 않다. 여기서 주목할 일 있다. 이른바 문심도 아닌 문재인 인기에 기대려는 약박한 선거운동만이 있을 뿐, 문재인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계획이나 공약,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등과 연계된 공약과 정책의 구체성은 확인되지 않는

다. 하물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변하게 될 정치, 경제적 환경과 국제질서까지를 내다보고 광주와 전남의 발전 계획을 내놓는 것은 애초 기대난망인 것인지는 모르겠다.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차별이라는 불멘소리는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거나 능력도 없으면서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만 타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게 되어 있다. (다음 기회의 지면에 문재인 정부의 지역혁신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광주와 전남은 그 정책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피력할 계획이다.)

광주와 전남의 위치자들에게, 그리고 그 위치자들과 함께 공약을 개발하고 지역발전과 더불어 시·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주문하고 싶다. 세기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를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정치,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비한 광주와 전남의 내일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써 6·13선거 동맹이 있을 뿐, 문재인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계획이나 공약,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등과 연계된 공약과 정책의 구체성은 확인되지 않는

社說

민주당 시·도지사 경선에서 언어야할 교훈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막을 내리고 이용섭, 김영록 후보의 공천이 확정됐다. 시종 일관 네거티브로 치달았던 경선과정과 달리 다행스럽게도 큰 마찰과 잡음없이 마무리된 듯하다. 경선결과 발표 직후 승자의 포용력 있는 태도와 패자의 승복하는 메시지가 SNS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에 기대를 가졌던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경선은 이전투구와 구태의 민낯을 벗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경선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 보다 성숙한 경선제도를 확립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앙당과 지역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게임의 룰은 일관성과 공정성, 형평성이 생명인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1차에서 끝내는 조용한 경선을 치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역동적인 경선으로 바뀌고, 결선일정도 유동적이었다.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

고, 후보들 역시 정적대결보다는 보다 자극적이고 파괴력있는 네거티브 전략을 선택했다. 심지어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TV토론회에서조차 비방과 흠집내기대로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했다.

게다가 세파시를 위해 지지자를 앞세운 성명전도 불쌍 사나운 대목이었다. 한마디로 정책은 없고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얼룩진 과거와 닮았는 경선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양당의 강력한 대항파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 독주가 가능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야당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일찌감치 내세웠다면 이렇게 과열과 혼탁으로 치달았을까 싶다.

이제 경선은 끝났고 본선이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50여일간의 선거기간 동안 어떠한 변수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 민주당 등 야당의 전열이 정비되고 있고, 정치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꺾어지고 있다. 지금부터는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그리고 공론과정을 통해 중요한 현안들이 걸러지고 다듬어져야 한다. 선거는 인물을 뽑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광주은행 채용부정 억울한 탈락자 구제해야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광주은행이 연이은 채용부정 사건으로 간부직원 2명이 구속되는 등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2015년 부행장보가 딸 면접에 참여한 의혹으로 지난 2월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2016년 채용비리 정황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채용비리는 2016년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20여명의 1차 면접점수를 조작, 이 가운데 최종 6명이 합격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당시 면접관들에게 면접점수를 고쳐도록 지시한 임원 서모씨와 중간관리자급 직원 황모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성별·학교별로 인원을 맞추려 점수를 고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채용규정은 이러한 기준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성별, 학교별 인원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현재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청탁이 있었는지, 관련자가 추가로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채용비리는 공공로케도 광주은행이 2014년 8월 JB금융지주에 편입된 이후 저질러진 일들이라는 사실이다. 현 검찰 JB금융지

주회장이 당시 행장이었던 시절이라 이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 전 행장은 당시 JB금융지주에 편입된 광주은행의 경영 개선을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전개하는 중이었다. 지역 점포망을 줄이는 대신 수도권 영업의 비중을 늘리고 수익성 위주로 여신관리를 해왔다. 그 결과 성장성, 수익성, 효율성 등 모든 경영지표에서 호전된 실적을 보인 바 있다. '합리적 의심'의 관점에서 채용과 영업력 제고의 상관관계를 그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방은행의 존재이유는 수익성 못지않게 중소기업 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중요한 지표이다. 그런데 광주시 금고를 맡고 있고 지역민의 자금을 끌어모아 운용되는 광주은행이 채용과정에서 불투명하다면 지방은행으로서 공공성을 훼손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채용비리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사회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범죄이자 사회악이다.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해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제돼야 한다.

현장칼럼



윤대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연구실장·문화학박사

크리스털 화법

하다. 가정의 위기는 핵가족화, 맞벌이, 저녁이 없는 삶을 강요하는 변이된 직장문화, 학교교육의 입시체제화, 가혹한 취업난, 비싼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로 아르바이트에 내몰린 대학생들의 처지 등이 원인이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이를 개선할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대화가 없다는 것은 곧 단절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선책으로나마 짝나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던 가족구성원들 간에 결속을 다지는 어떤 장치를 생각해봐야할 시점이 아닌 가한다. 세칭 '이벤트'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그것조차도 절묘한 타이밍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착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물론 다음 기회까지 기억할 수 없어 어려움과 수고가 따르는 물론이다. 그러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 간에 박물관 언저리에서 볼 때 우선은, 이벤트에 유물의 개념이 접목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유형의 유물은 기억이라고 하는 무형의 자산으로도 연결되어 효과의 극대화와 함께 오래도록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선함과 함께 유물의 개념까지 잘 담아내고 있는 필자의 한 지인 가족이 있어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 친구는 아이들이나 가족들

에게 소소하지만 기념할 만한 일의 생기록을 특별함을 선사한다고 한다.

크리스털 페에 소소함을 담아 주는 것이 그것인데, 예를 들어 졸업하고 삼급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의 의미를 담아 주기도 한다고 했다.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며 이를 수여함'이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아이의 작은 추억이나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 보여줬던 잔잔한 감동의 기억을 소급해 담아서 준다. 책을 많이 읽는 아이에게는 100권 또 200권 완독기념패도 주고 혼자 씩씩하게 외국여행을 다녀온 딸에겐 대견한 팔상도 준다.

연말 가족모임에서는 그해의 모범 아이상을 주기도 하는데 거창하지는 않지만 가족들만이 아는 작은 모범사례를 담아 칭찬해 준다고 한다. 막내가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았을 때는 지인의 아버지이며 아이의 할아버지가 친필로 '사랑하는 우리 손녀 ○○이! 네가 성장하는 과정이어서 대견하고 기쁘구나. 치아 교정(○월○일, ○○지과)과 더불어 축하한다.'는 글귀를 패 위에 쓰고 그 아래에는 동사무소에서 보내온 아이의 주민등록발급 통지서를 스캔 받아 그대로 함께 새겨 주었다고 했다. 치아를 교정한 사실

과 병원이름까지 담아 아이의 작은 역사까지도 기록하고자 함에서 가족들의 깊은 사려까지 새긴듯해 감동으로 다가왔다.

디지털카메라의 대중화와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으로 인해 인화된 사진도, 사진관도 사라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일상의 타임캡슐인 앨범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오늘날 정작을 허락하지 않는 제한 환경은 도시 유목민을 양산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소비패턴은 상품의 소비주기를 단축시키고 있다. 가족을 기억하는 유물이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이게 된 것이다.

'부모랍시고 변변치 못해 아이들이 시집 장가갈 때 줄게 이것밖에 없네. 이걸로 먼 훗날까지 가족을 기억해주면 더 고맙고.....' 크리스털 페는 무엇보다 값진 유산인 셈이다.

10시가 넘어 현관문을 여니 오늘도 아이들 방은 깜깜하다. 아르바이트와 시험 준비로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아이들. 크리스털 페가 자는 아니어도 '수고했다. 사랑한다.'는 쪽지라도 아이들 방에 붙여 봐야겠다. 애비의 이 작은 마음이 피로에 지친 아이에게 봄 햇살 같이 아늑한 미소로 전달되길 간절히 바라다.

독자투고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 모두의 실천이 필요할 때



화사한 봄날의 파스칼이 절정을 이루는 4월이다. 우리사회의 크고 작은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남에도 우리들은 편의주의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마다 같은 유형의 사고를 반복한다. 지금도 어김없이 봄날의 따뜻한 햇살속에 지자체 및 각종 기관, 단체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 모든 행사가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기에 불철 축제장 및 행사장에 일어난 사고는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고자 한다.

공연·행사장에는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평소엔 별 문제가 없는 시설물도 사립이 많고 분위기가 고조된 행사장에서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연·행사장에서는 주

변 시설물들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조명이나 전광판 등 떨어질 만한 물건은 없는지, 가스통 같은 폭발물은 없는지 주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압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퇴장시에는 뛰지 말고 줄을 서서 이동한다. 환풍구·난간 등 위험한 곳에 올라서도 안 되며, 화재의 위험이 있는 흡연이나 폭죽, 폭음탄 사용도 금물이다.

행사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알린다. 대피할 때에는 앞사람을 밀치거나 당기지 말고 안내에 따라 낮은 자세로 질서 있게 이동한다. 행사장에 들어갈 때 비상대피로나 출구 위치 등을 미리 익혀두면 도움이 된다.

안전은 개개인의 작은 실천을 중요하다. 2018년은 우리사회가 안전에 대한 의식이 꽃피는 한해가 되도록 행사를 주관하는 주체나 및 참여객 모두가 열린 생각으로 안전한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김춘성·목포소방서 예방홍보팀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그래픽 뉴스

노인만 남는 농촌... 70세 이상 사상 첫 30% 돌파

농촌에서 7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10명 중 3명은 70대 이상인 셈이다. 젊은층 이탈로 65세 이상 비율이 전국 평균의 3배를 웃도는 등 농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가우당 인원이 2명 안팎이고 절반 이상은 농축산물 판매 수입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농가는 104만2천 가구, 농가인구는 242만2천명이었다.

농업 포기과 전업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농가는 2만6천 가구(2.5%), 농가인구는 7만4천명(3.0%) 줄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농가·농가인구 비율은 5.3%, 4.7%로 역시 전년보다 각각 0.2%포인트(p) 하락했다.

연령별로 인구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134만 명으로 전체 농가의 55.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은 전년(70만8천 명)보다 22만명 늘어난 73만명(30.1%)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농가 인구는 60·70대에서 늘어난 반면 50대 이하에서는 모두 줄었다.

이런 영향으로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년(40.3%)보다 2.2%p 상승한 42.5%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고령 인구 비율(13.8%)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농가를 가구 유형별로 보면 2인 가구가 53.7%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18.1%), 3인 가구(14.4%) 등 순이었다.

1·2·3인 가구 비율은 전년보다 상승했지만 4인 이상 가구 비율은 하락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烈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9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정예부 650-2065	광고부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체육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사진부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논설실 650-2006	협회사무국 650-207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